

## 헤밍웨이의 死生觀의 研究

—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치과기공과 조 권 수  
전임강사

### I. 서 론

1961년 7월 2일 아침 7시경 세기의 작가 어네스트 밀러 헤밍웨이(Ernest M. Hemingway)는 Idaho 주의 Ketchun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쌍연발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했다. 그가 스스로 택한 죽음은 남달리 독특했던 그의 삶의 의미를 보아 다양한 각도에서 흥미하게 하며 그가 생전에 「삶속에 우리는 죽어 있다」(In the midst of life we are in death)라고 한 말이 시사하듯이 삶의 의미와 언제나 죽음에 대비되어 정되는 그의 작품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귀결이다.

헤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Illinois 주의 Oak Park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광신적인 기독교도로 집을 언제나 교회처럼 꾸미고 아들에게 첼로를 가르쳤으며, 아버지는 꽤 이름난 외과의사로 수술을 좋아하고 만능 스포츠맨으로 아들을 데리고 사냥과 낚시를 하러 다녔다. 후에 Hemingway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엿보이는 정신과 육체의 대립과 결합은 어쩌면 그가 자란 가정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학에 가는대신에 Kansas City의 신문 Star의 기자가 되고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하자 자원하여 종군한다. 그러나 그는 곧 오스트리아군의 박격포탄에 맞아 양쪽 다리에 200여개의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는다. 헤밍웨이가 열 여덟살때 입은 이 부상은 그의 육체에 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고 쓰고 있다. 헤밍웨이가 직접 체험한 전장은 폭력과 죽음의 현상이었고, 그 파괴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이 생명과 질서의 길을 다시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의 작품들의 큰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戰功을 기리는 메달까지 받은 제대병 헤밍웨이는 고향에 돌아오나 얼마 안되어 다시 신문 기자가 되어 파리로 가고 거기서 Gertrude Stein과 Ezra Pound 등의 선배 미국 문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조언을 얻으며 소설 습작을 시작한다. 당시 파리는 헤밍웨이와 같이 전후의 가치전도에 당혹감을 느끼고 허무감이 극도로 달해 자신들이 본국을 떠나 보헤미안적인 생활을 하는 본국이탈자(expatriate)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말로는 고귀한 전통과 질서의 이념을 떠들

어 대면서도 무자비한 살육행위를 자행 1차대전 이전의 가치체계에 대해 불신과 환멸로 바뀌었다. 1926년에 출간된 헤밍웨이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도 이러한 ‘길잃은 세대’(The Lost Generation)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성불구자가 된 Jake Barnes와 또한 전쟁때문에 애인을 잃고 술과 섹스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Brett Ashley와의 고통스럽고 좌절된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바로 정신적 파산으로 영혼이 황폐되어 가는 그시대의 참모습이었다. 이보다 4년 앞서 발표된 T.S.Eliot의 장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 주제가 비교되기도 하는 이 책머리에서 헤밍웨이는 제사(題詞)(epigraph)로 구약전도서 1:1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것이 헛되도다.”(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초기 작품들의 특색인 ‘길잃은 세대’의 허무주의와 nada (nothing) 사상을 보여준다.

3년 후인 1929년에 등장한 「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는 같은 해 독일에서 나온 레마르크(Remarque)의 「서부전선 이상없다」(*Im Western nichts Neues*)와 더불어 1차대전이 낳은 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데, 헤밍웨이의 삶에 대한 환멸과 허무주의 사상은 이 작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헤밍웨이가 그의 작품과 생애에서 추상적인 사고를 배격하고 육체적, 감각적 경험만을 숭상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그의 허무주의와 그의 시대가 추구하는 껍데기 가치관에 대한 만종에서 나왔다. 그는 항상 자신이 직접체험한 세계의 진실만을 썼으며 그가 추구하는 「남성다운」(tough) 인물들은 탁상공론이나 사상을 주 무기로 삼는 예술을 하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여긴다. Frederick는 「나는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난 먹고, 마시고, 캐더린(Catherine)과 자도록 만들어져 있다」(I was not made to think. I was made to eat, drink, sleep with Catherine)고 말한다. 즉 먹고, 마시고, 섹스를 하고 박격포탄에 얻어맞는등, 직접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이다.

헤밍웨이가 여성심리 묘사에 약하고 여성을 편파적으로 다룬다고 여권주의 비평가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그의 행동철학에서 연유된다고 하겠다. 그의 여주인공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그녀들의 연인을 떠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여자인물 중 가장 성격묘사가 잘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의 Pilar는 남성애 가까운 여장부이고 같은 작품의 Marica나 「무기여 잘있거라」의 Catherine은 자아가 뚜렷하지 못하고, 오직 복종과 헌신만을 알고, 남자의 성적 욕구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지만 헤밍웨이만큼 진지하게 또는 필사적으로까지 탐구한 작가도 드물다. 한 인터뷰에서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사랑과 사랑의 결핍, 죽음과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죽음의 회피」(love, lack of it, death and its occasional temporary avoidance which we describe as life)라고 대답하였다.<sup>1)</sup>

<sup>1)</sup> Chang Young-hee, "Stalking Papa's Ghost, Ernest Hemingway and his Works World," (*Seoul,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June, 1986), p.84.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대두되는 말은 바로 「죽음」이라는 말이다. 죽음은 그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폭력과 함께 헤밍웨이가 세상을 바라본 눈을 규정짓는다. 세상은 오직 끝없이 되풀이 되는 죽음과 폭력의 상징으로 인간앞에 서있으며 해가 또다시 떠오른다 하여도 새롭게 비출 것은 하나도 없다. 죽음과 육체적 파괴는 변함없고 냉혹한 사실은 헤밍웨이의 작품에 상존하는 모티브(motive)이다. 비평가 Malcon Cowley의 말처럼 그 어느작가도 그렇게 많은 시체들과 고통받는 동물들을 등장시킨 작가도 없다. 그러나 헤밍웨이의 세계의 진정한 공포는 그 육체적 파괴에 수반되는 영혼의 고뇌이다. 그러므로 헤밍웨이가 다루는 주제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그 죽음의 원인이되는 폭력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맛보는 죽음의 그림자, 패배, 극한 상황속의 고통과 생명의 힘이다.<sup>2)</sup>

Hemingway는 작가의 재능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동 중에 생겨나는 진실을 묘사하는 어려움과 그 진실을 서술하는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유명한 ‘억제와 간결, 생략을 모토(moto)로 하는 문체’는 이러한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Hemingway는 *Death in the Afternoo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f a writer of prose knows enough about what he is writing about, he may omit things that he knows and the reader, if the writer is writing truly enough, will have a feeling of those things as strongly as though the writer had started them. The dignity of movement of an iceberg is due to only one-eighth of it being above water. A writer who omits things because he does not know them only makes hollow places in his writing.<sup>3)</sup>

그렇다면 나머지 8분의 7은 어떤 형태로든지 명확히 형성화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E.M. Hallida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till, Hemingway has used the symbolism of association to convey by implication his essential meaning from the time of his earliest American publication.<sup>4)</sup>

*The Snows of Kilimanjaro*에서 Africa 평원의 상공을 날고 있는 새들의 존재는 지상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지만 그 지니고 있는 내면성으로 인하여 추상적인 인간의 존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간단히 시각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는 것이다.

<sup>2)</sup> *Ibid.*, p.84.

<sup>3)</sup> Choi Young-je, "Death presented in Hemingway's Works," (*The Journal of Mogho University*, I, 1979), p.108. 에서 再引用.

<sup>4)</sup> *Ibid.*, p.108.

인간존재의 참뜻을 파헤치려고 했던 Hemingway에 있어서 이처럼 모호한 인간존재가 외형적으로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죽음」과의 대면 또는 「죽음」자체라고 생각되었다. C. Baker는 Hemingwa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author seized those moment which life is condensed and cleancut and significant, presenting them in minute narrative that eliminate every useless word. Each tale is much longer than the measure of its lines.<sup>5)</sup>

인생이 압축되어 의미를 갖는 순간을 절대적인 양심을 지니고, 빙산의 비유처럼 객관적으로 기술해 감으로써 인간존재의 참뜻을 알아 내려는 것이 작가 Hemingway의 모든 작품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일관된 자세라고 본다.

‘헤밍웨이 열병’(Hemingway fever)이나 ‘헤밍웨이 전설’(Hemingway legend)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의 대중적 인기는 그의 죽음을 전후한 10년을 고비로 1770년대의 히피문화 反 스토이시즘(Stoicism) 물결에 밀려 사라진 듯하였으나, 80년대에 그의 문학적 위치가 재조명 되면서부터 이른바 Papa Hemingway의 그림자는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戰後의 중요한 미국작가치고 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 작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Sartre, Camus, Vittorini 등의 유럽작가들에서도 그의 문학적 영향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다른 작가들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목소리와 작품세계를 갖고 있다. 그는 Herman Hesse나 Thomas Mann처럼 심오하지도 않고 Sartre처럼 지성적이지도 않으며 또 George Orwell처럼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주제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들 작가 중 그 누구도 헤밍웨이 만큼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있는 그대로 표출한 작가는 없다. 이제 본 저자는 그의 몇 유명한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난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나 그의 「사생관」등을 고찰함으로써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알아볼까 한다.

## II. 본 론

### 1. *A Farewell to Arms* 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A Farewell to Arms*(1929)에서 Lieutenant Henry가 90 여세를 지난 Count Greffi에게 “죽은 후에도 역시 살고 싶습니까?”라고 질문한데 대해서 Count Greffi는

<sup>5)</sup> *Ibid.*, p.109.

“It would depend on the life. This life is very pleasant. I would like to live forever.”<sup>6)</sup>

라고 미소를 띠우면서 말을 이어

“If you ever live to be as old as I am you will find many things strange.”<sup>7)</sup>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Hemingway는 생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을 즐기기를 바라고 있다. Count Greffi는 그 말을 이어 만일 Henry에게 신앙심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I am asking several of my friends to do that. I had expected to become devote myself but it has not come.”<sup>8)</sup>

라고 말한다. Hemingway의 다른 작품의 예를 들면 *The Sun Also Rises*(1926년)의 Jake Barnes와 같이 Henry는 인심 좋고 이야기 잘하는 구세주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것을 표시하고 있다. Henry는 그에게 설명하기를 자기의 신앙심은 숫아날 때도 있으며 살아지는 때도 있다고 하면서

“I might become very devout. Anyway, I will pray for you.”<sup>9)</sup>

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하여 Count Greffi는

“Then too you are in love. Do not forget that is a religious feeling.”<sup>10)</sup>

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헤밍웨이의 ‘faith’(믿음)란 것이 짐작 되고 나아가서는 “the faith of love”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Hemingway의 작품 *A Farewell to Arms*(1920)의 주인공 Catherine Barkley가 Henry에게 던져주는 사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사랑은 그 sentimental(감정적인)한 것과 romantic(낭만적)한 多情은 범속한 철학의 melodramatic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주인공 Frederick Henry는 동료인 Rinaldi의 소개로 영국 야전병원의 지원 간호부인

<sup>6)</sup> Ernest Hemingway, *A Farewell to Arms*, (Penguin Books, 1969), p.202.

<sup>7)</sup> *Ibid.*, p.202.

<sup>8)</sup> *Ibid.*, p.203.

<sup>9)</sup> *Ibid.*, p.203.

<sup>10)</sup> *Ibid.*, p.203.

Catherine Barkley를 알게된다. Rinaldi는 이미 I am now in love with Miss Barkley, …… I will probably marry Miss Barkley<sup>11)</sup> 라고 Fredrick에게 사전에 말해 주었지만 Frederick와 Barkley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어소통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들추어 지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적으로 발생케 된다는 Hemingway의 생각을 처음부터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있다.<sup>12)</sup> 이 처럼 Frederick와 Barkley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두사람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 진다.

“You aren’t angry are you, darling ?”

“No.”

“And you don’t feel trapped ?”

“Maybe a little. But not by you.”

“I didn’t mean by me. You mustn’t be stupid. I meant trapped at all.”..

“We really are the same one and we mustn’t misunderstand on purpose.”

“We won’t.”

“But people do. They love each other and they misunderstand on purpose and they fight and then suddenly they aren’t the same one.”<sup>13)</sup>

여기 “올가미에 걸렸다.” (trapped)는 표현을 그녀와 Henry와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두 사람을 둘러 싸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의식까지도 생각해 볼 수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인생이란 설명되어 질 수 없는 일들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 준다.

Rinaldi was talking with the other nurse. They were laughing.

“What an odd thing. … to be in the Italian army.”

“It’s not really the army. It’s only the ambulance.”

“It’s very odd though. Why did you do it?”

“I don’t know.” I said. “There isn’t always an explanation for everything.”<sup>14)</sup>

주인공 Henry는 미국인이므로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말하자면 피안의 존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전쟁에 참여한 이상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처음 동기

11) *ibid.*, p.13.

12) Choi Young-je, *op. cit.*, p.10.

13) Ernest Hemingway, *A Farewell to Arms*, (Penguin Books, 1969), p.110.

14) *ibid.*, p.18.

는 어찌 되었던 군대나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전쟁이란, 영광이나 개성의 존재를 허용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 공로가 있어 주어지는 훈장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다.

“I’ve got bronze twice and three silver medals,” said Ettore. “But the papers on only one have come through.”

“What’s the matter with the others ?” asked Simmons.

“The actions wasn’t successful.” said Ettore.

“When the actions isn’t successful they hold up all the medals.”<sup>15)</sup>

점차 Henry 는 전쟁이 없다면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하게 되지만 전쟁이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와 같은 상상이 무력하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마음, 전쟁에 대한 혐오감은 작품 중 여러 곳에서 언급되지만 Caporetto의 후퇴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I did not say anything.

I was always embarrassed by the words sacred, glorious, and sacrifice and the expression in vein. We had heard them, sometimes standing in the rain almost out of earshot, so that only the shouted words came through, and had read them, on proclamations that were slapped up by billposters over other proclamations, now for a long time, and I had seen nothing sacred. And the things that were glorious had no glory and the sacrifices were like the stock yards at Chicago it nothing was done with the meat except to bury it. ...<sup>16)</sup>

Henry의 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거부반응은 물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실감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검문소에서 현병들이, 퇴각하는 군인들에서 장교를 찾아 내어 전열이탈의 죄목으로 총살에 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됨이 없이 죽음을 다루는 인간들의 가지는 초연한 태도와 정의에 대한 몰두다.

“Why are you not with your regiment ?” He told them.

“Do you not know that an officer should be with his troops ?”

He did.

That was all. Another officer spoke.

“It is you and such as you that have let the barbarians on to the scared soil of the fatherland.”...

<sup>15)</sup> *Ibid.*, pp.95 ~ 96.

<sup>16)</sup> *Ibid.*, pp.143 ~ 144.

“Italy should never retreat.”<sup>17)</sup>

이미 전쟁의 허구성을 실감한 Harry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냇가에 뛰어들어 도망쳤기에 헌병의 총살을 면하게 된다.

그후 그는 전쟁을 잊고 전쟁과 인연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I had made a separator peace. I felt damned lonely and was glad when the train got to Stresa. ...

“Don’t talk about the war,” I said. The war was a long way away.

Maybe there wasn’t any war. There was no war here. Then I realized it was over for me. But I did not have the feeling that it was really over. I had the feeling of a boy who thinks of what is happening at a certain hour at the schoolhouse from which he has played truant.<sup>18)</sup>

이러한 사랑이 계속하여 가던중 캐더린(Catherine)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난산으로 인하여 산모의 생명만을 살리게 된다. “It is very dangerous.”라고 간호원이 Henry에게 말하자 병실 밖에서 애인의 생명을 구해 주십사 하고 비통에 잠긴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드린다.

Don’t let her die. Oh, God, please don’t let her die. I’ll do anything for you if you won’t let her die.

Please, please, please dear God, don’t let her die. Dear God, don’t let her die. Please, please, please, don’t let her die.

God, please make her not die. I’ll do anything you say if you don’t let her die. You took the baby but don’t let her die. That was all right but don’t let her die Please, please, please, dear God, don’t let her die.<sup>19)</sup>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장하고도 비통에 잠긴 애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귀의(歸依)라 할가 아니면 믿음이라 할가 그런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Frederick Henry의 기도에 이어서 Catherine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시작된다.

“Do you want me to get a priest or anyone to come and see you?”

“Just you,” she said. Then a little later, “I’m not afraid. I just hate it.”<sup>20)</sup>

17) *Ibid.*, pp.174~175.

18) *Ibid.*, pp.188~190.

19) *Ibid.*, p.254.

20) *Ibid.*, p.254.



이처럼 실존적인 존재로 되돌아 오는 Hemingway Hero에 대해서 Joseph Waldmeir는

He who depends too heavily on prayer, or for that matter on any external aids when faced with a crisis, is not very admirable to Hemingway. ...

A man must depend upon himself alone in order to assert his manhood, and the assertion of his manhood, in the face of insuperable obstacles, is the complete end justification of his existence for a Hemingway hero.<sup>21)</sup>

라고 말하고 있다. Fredric는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비극적이면서도, 한편 인간존재의 필연적 사실인 Catherine의 「죽음」에 의해서 헤밍웨이는 인간의 실존적인 양상을 보여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애인의 사체를 병원에 두고 비를 맞으며, 걸어서 Hotel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Catherine을 걱정하면서 옛날 개미떼가 붙어있는 장작을 불더미 위에 던졌던 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인간존재를 절감하게 해 준다.

Once in camp I put a log on top of the fire and it was full of ants. As it commenced to burn, the ants swarmed out and went first towards the centre where the fire was, then turned back and ran towards the end. ... But I did not do anything but throw a tin cup of water on the log, so that I would have the cup empty to put whisky in before I asked water to it. I think the cup of water on the burning log only steamed the ants.<sup>22)</sup>

Catherine은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때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예감하게 되는 Catherine은 인간이 숙명적인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You be brave, because I can't do that all the time. It might kill you."

"I'm not brave any more, darling. I'm all broken. They've broken me. I know it now."<sup>23)</sup>

죽음에 직면한 Catherine은 "I'm going to die. I hate it."라고 닥아오는 죽음에 한

<sup>21)</sup> Choi Young-je, "Death presented in Hemingway's Works," *op. cit.*, p.115.에서 再引用.

<sup>22)</sup> Ernest Hemingway, *A Farewell to Arms*, (Penguin Books, 1969), p.252.

<sup>23)</sup> *Ibid.*, p. 248.

사코 항거하지만 “I want you to have girls, though.” 라고 Henry에게 애인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I’ll come and stay with you nights.” 라고 기막힌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다. 이부분은 死와 生은 동일한 대자연의 양상이요, 과정이라고 하는 장자의 死生一如觀과도 흡사한 것이며 따라서 동양적인 사생관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은 *A Farewell to Arms*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부분만을 골라본것이나 실은 그의 전작품 속에서 죽음을 취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대 비극으로 끝마치는 그런 story를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The fact that the book was a tragic one did not make me unhappy since I believed that live was a tragedy and knew it could only have one end. But finding you were able to something up; to create truly enough so that it made you happy to road it./ And to do this everyday you worked was something that gave a greater pleasure any I had ever known. Beside it nothing else mattered.”<sup>24)</sup>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첫째 이 인생을 비극이라고 보고 있으니 전술한 바와 같은 생의 매력이나 혹은 *For Whom the Bell Tolls*에서 Robert Jordan이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fighting for and I hate very much to leave it.”<sup>25)</sup>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아무리 tragic life (비극적 인생)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슨 의의를 찾아보며 이에 애착심을 느껴보고자 하는 현대인의 한 고민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여튼 그는 happy end (행복한 결과)가 아니고 tragic end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 단편사에 더욱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여성이 죽는 경우에 일어나는 비극, 따라서 여성이 곤궁에 빠지고마는 그런 인생에 더욱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A Farewell to Arms*에서 여성의 죽음을 취급하고 있을 뿐 다른 작품에선 거의 전부가 남성의 죽음이 아니면 죽고 마는 운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확실히 성(性)보다 죽음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중인물들은 bed보다 오히려 棺에 더욱 매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여자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앉아 죽거나 혹은 깨끗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하여튼 죽음은 Hemingway의 어두운 애인이다.

그의 초기의 작품은 Paris에서 출판된 *Three Stories and Ten Poems*(1923)와 *In Our*

<sup>24)</sup> Yang Byung-taek, “Hemingway’s View of Death.”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III, Seoul, 1956), p.176. 에서 再引用.

<sup>25)</sup> Ernest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Penguin Books, 1969), p.440.

*Times*(1924) 등 단편집인데 이들중 태반은 Hemingway가 소년시대를 보낸 Michigan의 삼림과 호수를 무대로 한것이나 나머지는 전후 구라과의 episode를 취급하여 전쟁과 투쟁, 그리고 죽음의 잔혹한 측도를 그리고 있다. 그중 그의 단편 *Indian Camp*에서는 Nick Adam의 부친이 인디안 여자의 해산 수술을 할 때 그 인디안 여자의 남편은 그의 처가 고향치는 것을 듣는 고통과 그 여자가 혹시 죽지나 아니할까 하는 공포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Nick은 그가 배운것을 흡수하기 위하여 그의 부친의 확실한 설명을 요구한다.

「아버지 - 죽는것이 어려워요?」

「아니, 내 생각에는 매우 쉬운것 같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야 하지만」

(“Is dying hard, Daddy?” “No, I think it’s pretty easy, Nick. It all depends.”)

- In “Indian Camp” - 그들은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 Nick은 뒤에 타고 아버지는 노를 저었다. 태양이 솟아 오르고 고기가 뛰어 물에 무너를 만들었다. Nick은 손으로 물을 휘저었다. 싸늘한 찬 아침인데 물은 따뜻하였다. 이른 아침 호수에서 아버지가 젖는 배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느꼈다. 여기서도 대조의 요소가 표시되고 있으니 죽 사망과 출생 이 두가지의 대조되는 사실을 교대시킴으로써 서로 반대되는 의의를 보이고 있다.

## 2. The Snows of Kilimanjaro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The Snows of Kilimanjaro*(1936)의 주인공 Harry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로 인한 절망의 구렁에서 빠져나와 재생의 길을 걷기 위해 젊었을적에 가장 행복했던 고장인 Africa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다음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Africa was where he had been happiest in the good time of his life, so he had come out here to start again.<sup>26)</sup>

행복해 보려고 건너왔던 Africa에서 그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입어 오른쪽 무릎에 가시가 찢린 것이 부주의로 인하여 곪아 괴저(壞疽)를 일으키게 된다. 침대에 눕고서는 연상 죽음에 사로 잡히어 한편 죽음과 싸워나가며 한편 죽음을 체험하는 단말마에 처한 인간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Harry는 그의 애인에게

Can’t you let a man die as comfortably as he can without calling him names ?

What’s the use of slanging me ?”<sup>27)</sup>

<sup>26)</sup> Ernest Hemingway, *The Snows of Kilimanjar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p.10

<sup>27)</sup> *Ibid.*, p.4.

하고 편안히 죽기를 원하나 “You are not going to die.” 라고 아내는 기운을 준다. 그래도 Harry는 “Don’t be silly, I’m dying now. Ask these bastards,”<sup>28)</sup> 자기의 죽음이 마치 벌거숭이 머리를 털속에 파묻고있는 보기 흉한 새와 관련되고 있는 듯이 혹은 나중에는 hyena의 존재가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듯이, 그도 죽음을 예기한다. 그리하여 I’m going to die tonight, I don’t need any strength up,”<sup>29)</sup> 라고 죽음을 체념하면서도 그는 「위스키를 가져와」하였고 죽음과의 마지막 도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Harry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체념은 이 작품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주검을 예기한 그 마당에 있어 Harry의 오늘날까지 이루지 못한것을 누우치며 한편 이를 이루어 보았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침상에 누워 눈에 덮여 있는 Kilimanjaro의 산봉우리를 멀리 바라보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한편 Harry는 작가로서의 정열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제 pen을 들고 글을 쓸 수 없게 된 Harry에게 뚜렷이 남아 있는 과거의 image가 독백의 형식으로 다섯번이나 떠오르고 있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두려움도 아픔도 가시고 죽어 가는 육신을 부지하는 일이 오히려 역겨워졌다.

All right. Now he would not care for death. One thing he had always dreaded was the pain. He could stand pain as well as any man, until it went on too long, and wore him out, but here he had something that had hurt fright-fully and just when he had felt it breading him, the pain and stopped....<sup>30)</sup>

Harry 자신의 죽음에 대한 체험은 아주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Because, just then, death had come and rested its head on the foot of the cot and he could smell its breath. ....

“Tell it to go away.” It did not go away but moved a little closer.

“You’ve got a bell of a breath,” he told it. “You stinking bastard.”... He could not speak to tell her to make it go away and it crouched now, heavier, so he could not breathe. And then, while they lifted the cot, suddenly it was all right and the weight went from his chest.<sup>31)</sup>

Harry의 죽음과, 현실감각과, 기억과 상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28) *Ibid.*, p. 4.

29) *Ibid.*, p. 17.

30) *Ibid.*, p. 23.

31) *Ibid.*, p. 25.

... and there, ahead, all he could see, as wide as all the world, great, high, and unbelievably white in the sun, was the square top of Kilimanjaro. And then he knew that there was where he was going.<sup>32)</sup>

이 단편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 Epigraph는 다음과 같다.

Kilimanjaro is a snow-covered mountain 19,710 feet high, and is said to be the highest mountain in Africa. Its western summit is called the Masai 'Ngaje Ngai', the House of God. Close to the western summit there is the dried and frozen carcass of a leopard. No one has explained what the leopard was seeking at that altitude.<sup>33)</sup>

이 표범은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 그와같은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Philip You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표범은 정상에 이를 수가 없었으며 그와 같은 기도(企圖)때문에 파멸한 것이다.... 그것은 그처럼 용감하고 엄청난 일을 시도하는 모든 것들의 당연한 수난이며 동시에 숙명인 것이다. 표범은 그곳에 이르러 얼어죽음으로써 영원불멸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sup>34)</sup>

표범은 Kilimanjaro의 봉우리에서 얼어죽음으로써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image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죽어서 그 Kilimanjaro의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Harry의 경우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본 부패된 시체이며 영원을 바라 보았던 Harry의 정신을 알아 볼 길이 없다.

영원을 회구하면서도 Nihilism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존재의 실상을 이 단편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The Capital of the world”에서는 Luarca하숙집의 waiter인 Paco가 이와 비슷하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결과를 이르고 만다. 그는 같은 동료인 Entique와 bull-fighting (투우싸움) 노릇을 한다. Entique는 의자 다리에 두개의 식도를 달고서는 이것을 황소의 뿔로 대신하게 하고서 이 두 소년들은 투우의 경기를 한다 한참 신나게 황소의 뿔을 비켜 멋있게 몸을 써가든 Paco는 그만 그 칼에 찔리어 죽게 된다.

이밖에 죽음을 태연히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서글프게 맞이하는 인생의 일면은 *Old Man at the Bridge*에서도 있으며, 또한 *The Killers*에서도 나타나 있다.

1950년에 발표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에서 평생을 두고 살아 왔으나

32) *ibid.*, p.27.

33) *ibid.*, p.3.

34) Choi Young-je, *op. cit.*, p.117.에서 再引用.

그렇다고 하여 아직 늙지는 아니 하였고 마음은 언제나 외롭고 무겁고 죽음에만 마음이 드는 그러나 맹렬한 자부심에 넘친 싸움의 용사 Colonel Richard Cantwell 과 나이 젊은 미모의 이태리 귀족인 Renatal 와의 깊고도 감동적이며, 그러나 자아없는 사랑의 몇시간이나, 죽음이란 가혹한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고뇌와 정욕, 그리고 절대의 용기가 영키고 있는 작품이다. Cantwell 은 Renata 와 이별을 하고 Trieste 로 향하는 도중에도 연상 죽음을 생각한다. 그는 운전수 Jackson 에게

“Do you know what General Thomas J. Jakson said on one occasion?  
On the occasion of his unfortunate death. -But this is how it was reported; order A.P.Hill to prepare for action. - Then he said, “No, no, let us cross over the river, rest under the shade of the trees.”<sup>35)</sup>

라고 Jackson 장군의 유언을 이야기 하며 자기도 저 개울을 넘어가 나무 그늘 밑에 고요히 쉬어나 보겠다는 뜻을 표명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만파를 다 겪은 노 대령(老 大 領)이 지나간 날을 회상하며 앞으로 닥아올 죽음이란 인생의 황혼을 서글프게도 조용히 바라다 보고 있다.

### 3. *The Old Man and the Sea* 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The Old Man and the Sea*(1952)에서 Hemingway 는 자신이

I tried to make a real man, real boy, a real sea and a real fish and real shark. But if I make them good and true enough they would mean many things. The hardest thing is to make something really true and something truer than true.<sup>36)</sup>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Santiago 는 작가가 오랜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인간상이라고 생각한다. Santiago 의 모습은 삶의 참 모습인 동시에 인간생존의 진실과 생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 밀착되어 있다. 노인의 생활 터전인 “바다”가 상징하는 자연은 인간과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스러운, 다시 말하면 영원의 고향, 인간이 결국에는 되돌아가게 되는 모태로서 의식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근대에 있어서의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어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기를 죽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erhaps it was a sin to kill the fish. I suppose it was even though

<sup>35)</sup> Yang Byung-taek, “Hemingway’s View of Death.” *op.cit.*, p.185. 에서 再引用.

<sup>36)</sup> Choi Young-je, *op. cit.*, p.118. 에서 再引用.

I did it to keep me alive and feed many people. But then everything is a sin. Do not think about sin. ...

You are born to be a fisherman as the fish.<sup>37)</sup>

Santiago는 Marlin을 잡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과 견디어 낼 수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일을 눈 앞에 두고서도 Marlin의 의젓한 자세와 용기, 인내심, 그리고 그 기상을 생각해 보며, 과연 인간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How many people will be feed, he thought. But are they worthy to eat him? No, of course not.<sup>38)</sup>

마침내 Santiago는 자기가 물고기와 동일한 차원에 놓여 있는 존재이며, 물고기를 잡는 이 일도 다만 자기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존하는 하나의 양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Fish,” he said, “I love you and respect you very much. But I will kill you dead before this day ends.”<sup>39)</sup>

I wish I could feed the fish, he thought, He is my brother. But I must kill him and keep strong to do it. Slowly and conscientiously he ate all of the wedge-shaped ships of fish.<sup>40)</sup>

“This fish is my friend too,” he said aloud. “I have never seen or heard of such a fish. But I must kill him.”<sup>41)</sup>

이제 Santiago에 있어서 “죽음”과 “삶”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고기를 죽여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의는 자기의 “타고난 직업”을 달성해야 하겠다는 그의 사명감에서 오는 것이다.

상어가 쫓아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大魚를 죽인 Santiago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Keiichi Harada는 ‘상어는 시간의 상징’이며, ‘모든것을 먹어 없애는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Santiago는 大魚를 죽이고 그 大魚를 상어뼈에 얹게 되므로써 인간이 범하지 않을 수 없는

37) Ernest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Bantan Book, 1965), p.97.

38) *Ibid.*, p.67.

39) Ernest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1968), p.46.

40) *Ibid.*, p.51.

41) *Ibid.*, p.66.

피의 세계를 실감하게 된다. 그는 이제 인간존재의 진실을 통감하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을 大魚에 대한 사과로 나타낸다.

“I shouldn't have gone out so far, fish,” he said. “Neither for you nor for me. I'm sorry, fish.”<sup>42)</sup>

상어와의 필사적인 싸움도 이제 무위로 돌아가고 대어는 뼈만 남게 된다. 그가 얻은 기쁨은 영원한 현대의 체험이었고 이와같은 기쁨이 지난 뒤 그는 자기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그는 자기를 기다려 주고 있을 사랑하는 소년과 이웃들을 생각하게 된다.

I cannot be too far out now, he thought. I hope no one has been too worried. There is only the boy to worry, of course. But I am sure he would have confidence. Many of the older fisherman will worry. Many others too, he thought. I live in a good town.<sup>43)</sup>

既述한 바와 같이 Santiago 에 있어서 「죽음」은 「삶」과 다름없는 경지에서 파악되어 있다. 이와같은 경지는 죽음의 공포심을 극복하고 초월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자기의 참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경지다.

Hemingway 는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흥미를 끄는 조건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인간이란 조만간 defeat (패배) 라는 죽음에 임하게 되는것인데 인생을 겪고 나아가는 사이에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며 인간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본다. *The Old man and the Sea* 의 the fight with the sharks 에서 늙은이는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sup>44)</sup>

라고 부르짖으면서

“Fight them. I will fight them until I die.”<sup>45)</sup>

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여러시련이 인생항로에 가로놓여있는 그 궁극적인 시련이란 즉 죽음

<sup>42)</sup> *Ibid.*, p.99.

<sup>43)</sup> *Ibid.*, p.104.

<sup>44)</sup> *Ibid.*, p.104.

<sup>45)</sup> *Ibid.*, p.104.



이라고 보고있다. 이것은 특히 *Green Hills of Africa*(1935)에서 보여 주는 바인데, 그는 이러한 인생시련을 매일 추궁해 나가는데 자기의 성실성에 대한 감각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것이다.

#### 4. *For whom the Bell Tolls*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그의 최대장편 *For whom the Bell Tolls* (1940)에서 Robert Jordan은 자기의 사명인 교량 파괴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말이 쓸어져 그는 부상을 입고 꼼작도 못하게 된다. 추격하여 오는 적군은 시시각각으로 닦아온다. Jordan은 자기의 애인 Mary에게 우리들은 정신적으로는 동일체라고 타일러 위로시켜, 자기의 직면한 이 장면으로 부터 떠나기를 권한다.

“-but I go always with thee wherever thou goest. Understand.”

“Listen to this well, rabbit, thou wilt go now, rabbit. But I with thee.

As long as there is one of us there is both of us, you understand?”

“-whichever one there is, is both.”<sup>46)</sup>

이것은 Ray West가 말하는 「절망과 무익의 장래 즉 패배한 고대종말」인 것이다. 죽고난 후에도 언제나 그대와 같이 있을것이라고 달래는 Jordan에게 그래도 Mary는 “I will stay with thee.”라고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Jordan은

“-But if thou goest then I go with thee- Thou wilt go now.”

“-But if thou goest then I go with thee- Thou wilt go now for us both.”<sup>47)</sup>

라고 말하며 한시 바빠 이 위협의 장소로 부터 떠나기를 권한다. 그러나 “Let me stay. Let me stay!”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Mary에게

“I am with thee, I am with thee now. We are both there. Go.”<sup>48)</sup>

하고 눈물의 생사이별을 하게 된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지 이미 오래며 점점 가까이 닦아오는 적군을 조금이라도 막아 국군의 퇴각을 유리하게 할려고 만만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는 「세계는 훌륭한 곳이다.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한다.

<sup>46)</sup> Ernest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op. cit.*, p.436.

<sup>47)</sup> *Ibid.*, p.436.

<sup>48)</sup> *Ibid.*, p.438.

"I have fought for what I believed in for a year now. If we win here we will win everywhere. The world is a fine and worth fighting for and I hate very much to leave it." 49)

여기서 그는 그의 초기의 소극적인 인생관에서 분명히 적극적인 인생관으로 변하여 왔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운명은 사회전체의 운명이요, 민주주의가 세계 어느 모퉁이에서 허물어지면 민주주의는 곧 세계도처에서 허물어 지는 결과를 가져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된것이다. 50)

그러나 그는 죽음에 직면하고서도 인생의 낙을 기억하고 있다. El Sordo 가 언덕위에서 죽어 갈때 그는 죽음의 관념을 증오하기도 하나 이것을 두려워 하지는 아니 하였다.

"But living was a field of grain blowing in the wind on the side of a hill. Living was a hawk in the sky. Living was an earthen jar of water in the dust of the threshing with the grain flailed out and the chaff blowing. Living was a horse between your legs and a carbine under one leg and a kill a valley and a stream with trees along it and the far side of the valley and the kills beyond." 51)

### III. 결 론

Hemingway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은 *A Farewell to Arms*에서의 Catherine의 죽음이며, *The Snows of Kilimanjaro*의 Harry, *For whom the Bell Tolls*의 Robert Jordan의 죽음등, 거의가 죽음과의 대결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간생활에 있어서 진실된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Hemingway의 생애를 돌이켜 본다면 이것은 작가가 '죽음'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및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그의 구조자적인 태도에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Harry Levin은 그의 글 가운데 Mark Schoren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emingway's style is not only his subject, it is his view of life." I could also be called his way of life, his Lebensstil. It has led him to live his books, to brave the maximum of exposure, to tour the world in an endless search for wars and their moral equivalents." 52)

49) *Ibid.*, p.440.

50) Yang Byung-taek, "Hemingway's View of Death", *op.cit.*, p.186.

51) Ernest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op. cit.*, p.440.

52) Choi Young-je, *op. cit.*, p.122. 에서 再引用.

*Farewell to Arms* 나 *The Snows of Kilimanjaro* 로 부터 출발했던 Hemingway 는 기성의 가치체계를 ‘무’ 라고 생각하는 Nihilism 이 먼저 체험적 실감으로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Farewell to Arms* 에서의 주인공 Fredrick Henry 는 *Indian Camp* 에 나오는 면도칼로 자살해 버린 Indian 여인의 남편처럼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죽어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만큼 그는 이 세상의 허무함과 고통을 동시에 맛보게 되는 것이다.

*The Snows of Kilimanjaro* 의 주인공 Harry 도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image 를 획득하게 된다.

믿을만한 가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생에 의의를 부여하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거기서 생기는 공백을 ‘행위’ 에 의해서 메꾸어 보려고 했던것이 초기·중기에 있어서의 Hemingway 의 입장이었다. Robert Penn Warren 은 *A Farewell to Arms*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That story is the quest for meaning and certitude in a world that seems to offer nothing of the sort....<sup>53)</sup>

Hemingway 가 자기의 Nihilism 의 공백을 행위에 의해서 메꾸려고 했던 행동주의 한계를 확실히 의식하게 된것은 *The Old Man and the Sea* 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자기주장도 찾아 볼 수 없다.

‘바다’는 ‘老人’이라는 개인을 초월한 ‘전체’로서 출현되어 ‘老人’을 포괄하고 ‘老人’이 되돌아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노인은 잡은 大魚의 살이 자기의 행동을 낚아채기도 하지만, 한편 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자연의 理法, 우주적 질서라는 개념 속에서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Half fish,” he said, “Fish that you were, I am sorry that I went too far out. I ruined us both. But we have killed many sharks, you and I, and ruined many others. How many did you ever kill, old fish? You do not have that spear on your head for nothing.”<sup>54)</sup>

결국 그가 회복하고자 바랬던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내적인 유대, 다시말하면 인간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영원한 모태로서의 자연이었던 것이다.

Hemingway 가 도달한 세계는 어떤 새로운 도덕질서나 행동원리보다 사랑, 용기, 인내, 겸손등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다만 그것들이 초자연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파악되므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의미로,

<sup>53)</sup> *Ibid.*

<sup>54)</sup> Ernest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1968), p.104.

부각되는 것이다.

이상 보아온 바와같이 그의 사생관이랄까 그런것이 *For Whom the Bell Tolls*의 작품을 계기로 하여 다소 달라지고 있다. 즉 *The Sun Also Rises*에 있어서의 Jake Barnes와 Bret Ashley, *A Farewell to Arms*의 Catherline Barkley의 죽음, 그리고 *To Have or Have not*의 Harry Morgan의 죽음, 그리고 *Three Stories and Ten Poems*, *In Our Times* 등의 일종의 Nihilism에서 오는 죽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For Whom the Bell Tolls*의 Jordan,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의 Colonel Cantwell, *The Old Man and the Sea*의 노인등에서는 Humanism (인본주의)에서 오는 죽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느 작가보다 죽음에 대해서 내생적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의 전 작품이 죽음을 취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작품속에서도 'death' 'die' 와 같은 죽음에 관한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Chang, Young-hee(June, 1986), "Stalking Papa's Ghost, Ernest Hemingway and his Works World."  
Seoul: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 Choi, Young-je(1979), "Death presented in Hemingway's works," The Journal of Mogpo University, I.  
Hemingway, Ernest(1069), *A Farewell to Arms*, Penguin Books.  
(1964), *The Snows of Kilimanjaro and Other Stori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8),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1969), *For Whom the Bell Tolls*, Penguin Books.
- Yang, Byung-taek (1956), "Hemingway's View of Death," Seoul: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III.

**A Study on a View of Hemingway's Life and Death  
-In His Master Pieces-**

**Kwon-soo Cho**

*Dept. of Dental Lab. Technology*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Since his death with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Ernest Hemingway has been an even more controversial figure than before. An athletic and versatile young man, he tried to enlist in 1917 but was refused. He became a newspaper reporter and then went to Italy as an ambulance driver. He was badly wounded, but returned to serve a short time in the Italian infantry. This was only one of many close meetings with death during his life. It is not strange that he wrote much about death, violence, war, hospitals, and wounded heroes.

In Hemingway, to show what a human being is, what a human being is capable of, and for that reason, to prove something worthy to live for was his primary concerns through his life. And his favorite theme was about death.

He tried to define and maintain his ideas about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however limited and imperfect they might be, in all his books and the characters of all his heroes are peculiarly human story, that is, death.

So I've tried to understand Hemingway's ideas about death through his main novels : A Farewell to Arms, The Snows of Killimanjaro, For Whom the Bell Tolls, and The Old Man and the Sea, and so on.

In A Farewell to Arms, on the death of Catherine, Henry did just leave the hospital and walked back to the hotel in the rain. Catherine dies in childbirth. The novel is a romantic tragedy, planned almost like a play in five acts, and it again shows Hemingway's obsession with violence, sex, and death. Here he shows increasing use of death, and natural scenery.

In The Snows of Kilimanjaro, Harry died with hope, which he couldn't realize in his life. In his tragic process, he achieved the moral triumph and his failure could achieve victory through his death.

In The Old Man and The Sea, the writer tells as a powerful and tragic story of an aging fisherman's lonely and heroic struggle to catch a giant fish far out at sea. We can also read

---

as an allegory of man's struggle with life or the artist's struggle with his art. The style is simple, dignified, and poetic.

No one who reads this story intelligently could think of Hemingway as a nihilist. In it he emphasizes many of the ideas, ideals, and attitude he has shown in all of his books: his insistence on honesty, the search for truth, courage, humility, endurance.

In For Whom the Bell Tolls, Robert Jordan falls in love with Maria and they enjoy a few hours of bliss before he is killed. Robert Jordan believed in liberty, impossible under Fascism. He did not believe in working for a planned society, but he accepted Communist discipline as necessary for the war.

In conclusion I can see that Hemingway emphasizes that death is fatal to man. That is, death and life are the same aspect of the great nature and process of it.